

## 신자유주의 이후 생명 위기와 회복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역할\*

홍성수(고신대학교/조교수)

yamhss@naver.com

---

### 한글 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신자유주의 특성과 교육의 한계를 논의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기독교교육의 역할을 제시하는 데 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을 유포피아로 전제하면서 완전한 시장 질서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경제우선주의 사상이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경제원리에만 머물지 않고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면서 특히 자본주의와 연결하여 종교성을 나타낸다. 여기에 속한 인간은 신자유주의 시장에 맞는 유연한 노동력으로 이해된다. 그런 까닭에 신자유주의는 교육의 도구화 현상, 자유와 평등에 대한 왜곡, 전통적 가치에 대한 상실, 그리고 정체성을 잃고 표류하는 인간상을 심화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점들을 비평적으로 논의하면서, 시장에 대하여 성경에 기초한 균형 잡힌 이해, 교육의 도구화 현상에 대응하여 교육 본연의 목적 회복, 그리고 기독교인간학에 기초한 통전적인 인간상 규명과 적용에 있어서 기독교교육의 역할을 제안하였다.

### 《 주제어 》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교육의 도구화, 신인간, 기독교교육

---

\* 본 논문은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하계학술대회(2021년 7월 3일, 서울신학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임

## I. 들어가는 말

신자유주의는 단순히 경제사상으로만 자리하지 않고, 교육을 비롯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쳐 왔다. 이것의 지향점은 완전한 시장에 있다. 그래서 여타의 것들은 시장의 절대적 권위 아래 위치하게 된다. 이리므로 신자유주의에서 교육은 시장원리에 따라 이해되고, 교육적 인간상은 신자유주의 강화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에 머물게 된다. 신자유주의 교육에서 통전성은 배제되며,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강조해 온 공동체의 가치는 약화 된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의 교육적 인간상은 전통적인 이해로부터 이탈과 왜곡을 가져오고, 이런 현상은 기독교교육의 현장을 어렵게 만들고 교육의 위기를 가중 시킨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로부터 일어나는 교육위기 현상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다. 임재홍(2003)은 신자유주의 유입으로 인한 교육개방과 공교육의 위기를, 정훈(2016)은 광복 이후 70여 년 역사를 반추하면서 한국교육의 특성을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혼재로 진단하면서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신자유주의는 신학 및 기독교교육학 분야에서도 종종 연구 대상이 되었다. 장윤재(2008)는 세계화 담론에 있어서 하이에크(F. A. Hayek, 1899-1992)의 신자유주의 사상을 논의 대상으로 삼고 정치경제학적, 윤리적, 신학적 측면에서 이를 비평적으로 서술하였고, 강용원(2011)은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의 특성을 서술하면서 기독교적으로 평가한 후 회복적이고 통전적 기독교교육의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모색하였다. 오현선(2013)은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한 방편으로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관점에서 신학교육을 논의하였고, 오성주(2016)는 금세기 위기사회를 풀어나가는 가운데 신자유주의 인간상이 내포하는 문제들을 적시하고 영성과 기독교교육의 관계 속에서 그런 문제들을 극복할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고에서는 신자유주의의 등장을 간략히 고찰하면서 그 성향을 분석하고, 이것의 교육을 비평적으로 평가한 후에, 신자유주의 및 그에 기반한 교

육이 양산하는 신자유주의 인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신자유주의 인간상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를 회복하기 위한 기독교교육의 역할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의는 “(1) 신자유주의의 시장은 어떤 것이며, 이것이 완전한 해결을 가져올 만한 이상향이 될 수 있는가? (2) 신자유주의의 교육은 어떤 것인가? (3) 신자유주의의 신인간상은 어떤 것인가?” 등 세 가지를 중심으로 풀어가고자 한다.

## II. 신자유주의의 출현

### 1. 신자유주의의 배경

1870년부터 1차 세계대전 전까지 신자유주의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자유주의가 서구의 지배적인 경제사상이었다. 그 후 영미권의 케인즈주의, 독일의 질서자유주의가 자유주의를 대체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1980년부터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글로벌 위기로 확대되기 전까지 신자유주의가 세계 경제를 지배하였다(김호균, 2010, 12). 이렇므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배경에는 자유주의(liberalism)가 자리한다고 볼 수 있으나, 하이에크는 자신이 제안하는 신자유주의가 19세기 고전적 자유주의, 그리고 케인즈의 새자유주의(new-liberalism)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라고 명명하였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를 문자 그대로 자유주의와 같다고 할 수는 없다(이건만, 2012, 218). 그렇지만 시장의 완전한 자유와 권한을 표방한다는 점에서 양자 간 연결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유주의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근대세계를 지배한 관념으로 1870년에서 1차 세계대전 전까지 약 반세기 기간 근대 자본주의의 주류가 된 고전적 자유주의를 말한다. 이 시기에 세계 경제는 상품과 자본 운동에 있어서 긴밀한 경제적 통합을 구축하면서 세계화의 초기 황금기를 형성하

였다. 여기에는 시장을 인간 사회에서 물질적 교환의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로 간주하고 시장원리에 모든 것을 맡기는 시장우선주의 또는 시장만능주의 사상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와 같은 자유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 경제 체제는 정치, 경제, 사회 갈등의 심화로 위기에 봉착하였다. 그런 이유로 자본주의 자유시장은 궁극적인 물자교환의 형태가 아니라, 임시적 형태에 불과하며,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사고가 등장했다. 이는 ‘케인즈주의’(Keynesianism)로 알려졌고, 이 사상은 2차 세계대전 기간 케인즈에 의해 구안된 ‘브레턴 우즈’(B. Woods) 체제가 붕괴하기 전까지 세계 경제의 주류 사상으로 자리하였다(배성인, 2005, 44).

브레턴 우즈는 1944년 7월 미국, 영국 등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이 모여 회의했던 미국 동부의 지명이다. 이곳에서 케인즈식 통화정책을 허용하고, 자유무역을 복원하며, 국제금융을 비롯한 국제기구 설립에 합의하게 된 것이다(지주형, 2018, 29-31). 이로써 고전적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에 자리했던 케인즈주의는 세계전쟁 이후 시장경제 확립과 복지국가의 결합 형태로 서구의 정치경제 질서를 발전시켰다. 케인즈(J. M. Keynes, 1883-1946)는 1930년대 서구 산업사회의 극심한 실업 문제의 원인이 구매력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에 있다고 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수요를 증진 시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서구 국가들은 완전 고용을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런 정책은 효과를 거두었지만, 실업률이 많은 나라에서 통제 불가능한 문제로 치달았다(Giddens & Sutton, 2014, 310). 그러면서 케인즈주의는 1970년대 브레턴 우즈 붕괴와 더불어 거센 세계화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고, 서구 사회는 케인즈주의 등장 이전의 세계관이었던 자유주의로 회귀하게 되었다(배성인, 2005, 44).

영미권에서 케인즈 체제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전후 독일에서는 질서자유주의 사상이 나타났다. 질서자유주의(Ordnungliberalismus)는 제2차 세

계대전 중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 학파 학자들인 뮐러 아르막(A. M. Armack, 1901-1978), 발터 오이켄(W. Eucken, 1891-1950), 뢰프케(W. Röpke, 1899-1966) 등에 의해 철학적 기초로 구안 된 것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는 시장경제를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경쟁의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가의 강력한 대처를 강조하였다. 질서자유주의는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Die Soziale Marktwirtschaft)로 구체화 되어 라인강의 기적을 일군 경제 정책이 되었다(김진호, 2016, 328-332). 독일과 영미 사이 이런 차이는 ‘라인강’ 모델과 ‘앵글로-아메리칸’ 모델로 양분되어 해석된다. 라인강 모델은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이 추구하였던 것으로, 노동조합과 경영자 측 모두 권력을 공유하며 정부의 복지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사회 안정망을 보장한다. 반면에 앵글로-아메리칸 모델은 자본주의 자유시장을 강조하면서, 국가관료주의를 벗어나 경제상황에 대처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근로자들에게 사회 안정망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보면 라인강 모델은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를,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앵글로-아메리칸 모델을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Sennett, 2002, 70-71).

## 2. 신자유주의의 출현

전후 30년간 영미를 중심으로 하여 세계 경제에 지배력을 행사하던 케인즈 체제가 막을 내리고, 그 후 30여 년간 신자유주의 체제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이론을 넘어서 당시 영국의 대처 수상과 미국 대통령 레이건에 의해 정치적 실천으로 채택된 정책이다. 영국의 경우 1970년대 저성장, 인플레이션, 그리고 높은 실업률이 문제가 되었다. 이를 타개하고자 1979년 집권당이었던 보수당은 정부의 기능 축소, 민영화, 노동조합의 연성화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것이 대처리즘(Thatcherism)이다. 미국 역시 영국의 경우와 유사하게 조세감면,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과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것이 레

이거노믹스(Reganomics)이다(박송인, 2019, 67-71).

이처럼 신자유주의 등장은 1970년대 세계 정치경제 환경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다. 1970년대 자본축적의 위기는 경제 위기를 가져왔고, 이것은 서구 유럽의 복지국가 체제의 견고성에 의구심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 여기에는 1980년대 가속화된 세계화의 흐름에 따라 세계 경제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진 점과 1990년대 소련의 해체로 인한 동유럽 사회국가 체제 붕괴 등이 주요 배경이 되었다. 그러면서 20세기 말에 이르러 전 세계는 소수의 발전국가와 다수의 저성장 국가로 대비되었고, 양자 간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격차를 심화하여 불균등한 분배와 발전이 세계적으로 보편 현상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하이에크와 프리드먼(M. Friedman, 1912-2006) 등 시카고학파를 중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한 것이다(권수현, 2010, 19).

1980년대 등장한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통해 자유와 경쟁을 보장하면서도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던 질서자유주의와는 결을 달리한다. 양자 간 차이는 정부에 대한 그들의 관점이 다르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하이에크는 시장 질서를 자생적 질서와 인위적 질서로 구분하고는 자생적 질서가 인위적 질서보다 우월하다고 보았다. 그는 자생적 질서를 억제하는 것은 인간의 자만이라고 비판하였다. 질서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문제 해결을 도모하지만, 하이에크는 더디더라도 시장의 조정 능력을 신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므로 차이를 보인다(김진호, 2016, 342-347).

### III. 신자유주의의 특성과 교육

#### 1. 신자유주의의 시장

신자유주의는 국가개입을 배제한 완전한 시장중심 체제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로써 시장 내 경쟁을 끌어내고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국가권력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국가 간 자유경쟁이 활성화되는 국제적인 시장을 도모한다(강용원, 2011, 23-24). 신자유주의에서 자유는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이다. 예컨대 문명국을 벗어나서 외지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에게 자본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든 구매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관점이다. 이런 까닭에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자본축적이 중요해진다. 자본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이것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이 재편된다고 본다. 또한 신자유주의에서 자본은 초국적 자본을 말한다. 자본은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만약 신자유주의에서 국가를 강조한다면, 그것은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 때문이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에서는 경제 영역에서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자유주의의 가치 곧 초국적 자본의 유통을 전 세계에 가능하게 하는 여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경제에 대해서는 작은 정부, 정치와 군사에서는 강력한 정부를 말한다(배성인, 2005, 43-44).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완전한 자유, 자본축적을 위한 무한한 경쟁, 그리고 그에 따라 불거지는 전통적인 가치 배제를 특성으로 갖게 된다.

첫째로, 신자유주의는 시장에 완전한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견지한다. 하이에크(2016, 25-26)는 인간의 질서는 인간의 기획이나 의도에서 나오지 않고, 자생적으로 생겨났다고 본다. 사회진화의 관점에서 질서는 그것을 따르는 집단들의 진화적 선택으로 확산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질서를 의식하지 못한 채 체제에 단순히 적응하게 된다. 신자유주의에서 국가는 일종의 기업이 되고, 신자유주의가 지향하는 시장만능주의를 추구하는 정책을 펼 것을 요구받는다. 신자유주의의 시각에서 국가정책의 실패는 국

가가 효율적인 시장을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부속 공공부문을 민간 영역으로 이양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개혁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본다. 그런 까닭에 신자유주의에서 국가는 많은 부분에 대하여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다.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대사회는 초국적 자본과 다국적 기업이 큰 영향력을 나타내므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세계 경제에 관여하여 통제할 수는 없다(강용원, 2011, 24-25).

둘째로, 신자유주의는 자본축적을 목표로 무한경쟁을 추구한다. 이 점에서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는 경쟁을 심화시키는 세계화, 곧 극도의 경쟁주의를 말한다. 1930년대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 그리고 1970년대 경제 위기 시기에 신자유주의는 자유방임 시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면서 자유에 대한 전통 개념을 바꾸었다. 근대사회는 만민평등사상을 기초로 하는 자유를 생각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에서는 평등이 제거되고 자본을 확보한 이들에 한해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는 개념이 들어 온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는 시장에서 무한경쟁을 통해 자본을 확보할 수 있을 때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세계에서는 만민평등사상이 존재할 수 없고, 평등을 대체한 경쟁이 자유를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는 자유와 평등을 핵심으로 여겼던 근대사상을 역사의 뒤편으로 보내고, 이른바 ‘부르주아’층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질서를 끌어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유의 기존 개념이 변질되었는데, 곧 인간의 자유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무한경쟁을 통해 쟁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권수현, 2010, 38-39).

셋째로, 신자유주의에서는 전통적인 가치들이 왜곡되거나 배제된다. 신자유주의는 여기서 더 나아가 전통 사회를 뒤집고 시장만능주의 종교성을 내포한 또 하나의 사회를 양산한다. 이로써 신자유주의는 경제 분야에만 머물지 않고, 시장을 절대화 내지 우상화하는 종교성을 보인다. 여기에서 신자유주의의 폭넓은 영향력을 감지할 수 있다. 이것은 하나의 경제이론으로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종교적 신앙에 가깝고, 사람보다 시장을 우선순위에 놓는 주객전도를 보여준다(장윤재, 2008). 이처럼 시장만능주의를 기조로 하는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와 연결하여 종교 성향을 띄게 되고, 기독교공동체의 핵심 가치에서 이탈하여 왜곡된 가치관을 양산한다.

## 2.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신자유주의는 시장만능주의를 표방하므로 자본에 대해 강하게 집착하는 성향을 내포한다. 이 점에서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고, 자본주의 종교처럼 비추어진다. 벤야민(W. Benjamin, 1892-1940)은 자본주의에 내재한 종교성을 세 가지로 분석하였다(2008, 121-126). 첫째는 순수한 제의(祭儀)적 종교성이다. 자본주의는 가장 극단적인 제의 종교성을 가지는데, 여기에는 교리도 신학도 없다. 둘째는 이러한 제의적 성향은 무한정 지속되는데, 이는 자본주의가 희망도 자비도 없이 중단없는 제의(祭儀)를 강요한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자본주의에서는 평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은 채 쉴새 없이 자본주의 축제일을 벌인다. 셋째는 자본주의가 벌이는 중단없는 제의는 막대한 부채를 양산한다. 이런 점에서 자본주의 종교에서는 죄를 탕감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죄를 계속 축적하는 일만 반복 된다.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는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를 보편화시키며, 그래서 제의로만 구성되면서 신학과 교리는 존재하지 않는 종교가 된다. 이와 같은 자본주의에서 인간이 탈출할 길은 없으며, 이 종교는 모든 것이 절망으로 인식될 때까지 인간을 몰아세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걱정하는 것이 죄의식의 표출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런 걱정은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종교로부터 탈출할 수 없다는 불안감에서 나온다고 본다. 벤야민(Benjamin, 2008, 126)에 따르면, 종교개혁기를 거치면서 기독교가 이와 같은 자본주의 종교로 변형된 것이다.

한편 파울 페르하에허(Verhaeghe, 2015, 128-129)에 의하면, 신자유주의

는 정치, 종교, 경제, 예술 같은 주요 네 가지 영역 중에서 경제를 최우선에 놓고 이것을 종교화하면서 다른 것들을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자본주의 종교성을 드러낸다. 여기서 인간은 자기 이익만 노리면서 경쟁하는 존재일 뿐이고, 모든 인간은 정상에 오르기 위해 경쟁할 때 최고의 결과를 얻는다고 여긴다.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개입이 없는 완전한 자유시장을 선행 조건으로 주장한다.

한병철(2015, 14-19)은 자본주의 종교에서 진정한 자유는 없다고 본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마르크스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공산주의에 의해 막을 내리지 않고, 신자유주의로 변이한다. 이렇게 되면 마르크스가 이해하는 계급투쟁은 자본주의와 결합한 신자유주의 세계에서 자기 자신과의 내적 투쟁으로 바뀐다. 이에 현대인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착취하는 노동자가 된다. 신자유주의는 계급투쟁을 막아버리고, 타자에 의한 어떠한 착취도 차단하면서 모든 계층이 탈출할 수 없게 자기 착취를 보편화 시킨다. 이런 식으로 신자유주의는 성과사회를 지향한다. 성과사회에서는 구조에 대하여 투쟁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대신 모든 실패를 자신의 책임으로 귀착시키며, 더 강한 자기 착취로 나아가게 만든다. 이처럼 신자유주의는 인간에게서 자유와 책임을 제거하고, 자본주의 종교 안에서 인간을 영원한 채무자로 만들어 간다. 그리하여 신자유주의에서 신은 마치 자본과 같고, 자본에 의해 시장만능주의 이상을 유일한 가치로 추구하게 된다.

성과사회는 신자유주의 체제의 특성을 보여준다. 한병철(2012, 23-29)은 규율사회와 성과사회를 대비하면서, 규율사회는 부정성의 사회로 당위가 사회를 규정하며, 금지의 부정성을 통해 범죄자를 양산한다고 평가한다. 반면에 성과사회는 능력의 긍정성을 통해 규율 단계를 뛰어넘어 생산의 극대화를 가능하게 만들고, 복종적 주체를 성과주체로 바꾼다고 본다. 성과사회는 규율사회에 비해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목표에 맞추어 더 빠르고 더 생산적이 된다. 이것은 성과사회에서는 밖에서 억압하고 지배하는 기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 자신이 성과주체이면서 자기 자신을 강제하고 착취하기 때문이다. 곧 규율사회에서 과중한 노동은 성과사회에서 자기 착취로 더욱 강화된다는 것인데, 성과사회에서는 외부의 압력 없이도 자기를 착취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신자유주의 성과사회는 무한한 자본축적을 목표로 무한경쟁을 통해 완전한 시장만능주의를 향해 치달는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와 긴밀하게 결합하면서 종교처럼 여겨지고, 여기에 속한 인간은 어떠한 외부 세력에 의해 지배되지 않으면서도 자기 자신을 자본의 노예로 위치시키고, 자본이 요구하는 대로 무한한 자기 착취를 허용한다. 이로 인하여 신자유주의에서 인간의 자유와 생명 존중의 가치는 극도로 약화 되고 그 의미를 상실하고 만다.

이렇듯 신자유주의의 자유시장은 경쟁적, 합리적,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가장 이상적이고 완전한 사회로 간주 된다. 신자유주의에서 국가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기업은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자본 확보를 통한 자유 쟁취에 여념이 없다(McChesney, 1999, 16-18). 이런 식으로 신자유주의는 자본획득에 성공한 소수에게만 자유를 허락하고, 그렇지 못한 대다수에게는 가혹한 체제가 되므로 끝없는 빈부격차를 조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전통적인 가치들 곧 평등, 자유 등이 배제 혹은 왜곡됨에 따라 기독교가 추구하는 생명을 공유하고 공생하는 사회를 이루어가는 데 큰 위기를 가져다준다.

### 3. 신자유주의의 교육

신자유주의는 세계화 현상에 부응하여 과거와는 구별되는 경제 체제를 구축해 왔다. 이 사상은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이 모든 문제를 해소하고 무한한 자유와 그로부터 주어지는 최상의 혜택은 만인의 것이 될 것이라 이

야기한다. 그러나 실상은 소수의 특권층 곧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자본 확보에 성공한 이들에게만 이런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신자유주의는 불평등과 빈곤을 심화시키고 편향된 자유를 고착시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시장원리에 기초하여 이해된다. 교육은 시장에서 좋은 상품을 매매하는 과정이다. 국가는 교육의 영역에 대해 최대한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자본이 요구하는 유연한 노동력을 학교를 비롯한 교육시장을 통해 확보하려고 한다. 이와 같이 국가의 교육재정 부담 감면은 신자유주의 등장 이전에 이미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을 설파한 스미스(A. Smith, 1723-1790)의 『국부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미스(2018, 932-933)는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하면 교사의 자질 개선에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한다. 이는 교사들이 자신의 자질 향상과 무관하게 급여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만약 교사의 급여 일부를 학생들이 수업료를 통해 분담하게 한다면 교육시장은 경제적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교사의 자질도 개선될 것이라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교육에서 생산과 소비라는 시장 관계가 형성되고, 이러한 교육시장에는 교육공급자, 교육상품, 교육소비자라는 구도가 작동한다. 이때 교육시장의 핵심 가치는 교육의 수월성과 효율성이다. 이 핵심 가치를 달성하는 방법은 학생과 학교 간 경쟁구조 강화, 국가의 규제 억제와 교육 분야에 있어서 민간 참여 확대, 기업경영 방식 도입, 그리고 교육비에 대한 수익자 부담 확대 등이다. 이렇게 되면 전 국민에 대한 국가교육을 중요시하던 공교육은 사적인 차원에서 무한경쟁을 통해 수월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교육시장으로 교육 질서가 재편된다. 이런 방식으로 신자유주의에서 교육의 공공성은 희석되고 사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시장의 원리가 중심에 놓인다(천보선·김학한, 1998, 51-52).

이와 같이 교육을 시장의 원리로 접근하면, 학교는 자본이 필요로 하는 유연한 노동력을 성공적으로 성취해주는 기관으로 이해된다. 물론 이런 시각에서도 창의적이고 자율적 교육, 열린 교육, 평생교육이 강조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긍정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가 필요로 하는 자본 축적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강조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천보선·김학한, 1998, 53). 세넷(Sennett, 2002, 60)에 의하면, '유연성'(flexibility)은 구부러졌다가 원상태로 돌아오는 복원력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변화하는 환경에 의해 인간이 부러지지 않고 적절히 대응하는 힘을 뜻한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에서 유연성은 정형화된 일상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 추구해야 할 속성으로 이해된다. 이때 유연성은 유연한 조직 안에서 인간을 구부러지게 하는 힘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유연화를 가져오는 힘이 관료주의를 개혁하고, 생산의 유연 전문화를 가져오며, 중앙집중이 없는 힘의 결집을 가능케 한다. 예를 들면 유연한 힘이 작동하는 유연한 조직에서는 유능한 고용인이 소속감을 갖고 장기 근무하는 일이 배제된다. 유연한 조직은 부단한 변화 속에 적응하기 위해 장기가 아닌 단기의 가치를 갖고 있으며, 그래서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의 기조 아래 잦은 감원 정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유연한 노동력은 한 곳에서 장기근무하면서 장인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에 따라 여러 곳을 이직하면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라 보는 인식 변화가 나타난다(Sennett, 2002, 62-85). 이런 일들이 기관이나 기업에서 보편적인 추세가 되면 관료주의와 중앙집중적 통제 현상은 제거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유연화의 힘이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는 인간을 출현시키지는 않는다. 그 대신 자신의 과거와 단절로 인해 마주하는 현재의 분열을 수용하면서 불안정적인 현재와 불확실한 미래를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강요받는 인간을 양산한다. 이런 점에서 신자유주의의 신 인간상은 전인적이고 통전적인 기독교 인간 이해에 역행된다.

신자유주의 교육시장은 유연한 힘의 작동에 따라 미래의 노동력이 될 학생들에게 유연한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대처 능력과 창의적이고 자율적이며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추도록 해야 할 과제를 가진다. 또한 이들에게 실업 교육을 제공하여 현장에서 실무를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평생 교육 역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재확인하면서 인생의 풍

성한 질을 보장하는 교육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평생교육은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유연한 노동력을 계속해서 확보해 주고, 또 부단한 경쟁 가운데 생존에 성공하기 위해서 받아야 할 불가피한 교육이 된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교육은 유연한 노동력을 시장에 끊임없이 공급하여 자본을 축적하게 만드는 체계적인 행위이며 수단이다. 더 많은 자본을 더 수월하게 축적하기 위해서는 노동강도 강화, 고용불안, 실업, 임금 저하 등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감수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교육시장에 유연한 노동력이 끊임없이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인재 양성이란 목표는 자본 중심의 논리에 따라 개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동체성을 저하시키는 쪽으로 작용한다. 이런 방식으로 신자유주의는 배타적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교육의 도구화 현상을 양산한다(천보선·김학한, 1998, 53-55).

한편 교육을 시장의 원리로 접근하는 신자유주의는 냉전체제가 해체되고 이데올로기가 약화 된 상황에서 오히려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데, 곧 자본 이데올로기이다. 그러나 인간이 자본을 관리하고 건설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라는 체제가 자본주의의 토대 위에서 사람들 사이 무한경쟁을 일으키고 그로써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신자유주의 세계를 형성하고 강화한다. 이렇게 되면 노동력에 대한 요구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한다. 자본축적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강요된 무한경쟁은 자본간 경쟁하는 세계화를 만들고, 이는 한정된 자원에 대한 과도한 소비와 에너지 고갈을 부추긴다. 이렇듯 신자유주의 교육시장에서 판매되는 유연한 노동력은 신자유주의 체제를 심화하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따라서 촘스키(Chesney, 1999, 140)는 '기회 없는 자유는 악마의 선물'이라고 하면서 그런 기회 제공을 박탈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신자유주의 사상을 인간의 자유에 대한 보편적 적용이 아니라 자본을 가진 소수에게로 그 자유를 제한시킬 뿐이라고 비판한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교육이란 내면적 본질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시장을 위해 내재하는 종속된 차원에서 도구적인 교육으로 자리한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위해서는 필수적이고 요긴한 교육일 수 있으나,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교육 재편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당한 논쟁거리를 야기할 수 있다(이건만, 2012, 242).

## IV. 신자유주의 교육의 한계와 기독교교육의 역할

### 1. 신자유주의 교육의 한계

신자유주의 교육사상은 자본 중심의 정치경제 이해에 따라 전개된다. 이것의 교육적 토대는 시장만능주의에 자리하고 있고, 그 목적은 자본의 무한한 축적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수월성, 효율성을 강조하는데, 이것의 교육사상은 1980년대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자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그리고 1990년대는 초국적 자본 유치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연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는 교육을 자본의 하위 개념으로 판단하며, 시장만능주의 실현을 위한 도구로 본다(천보선·김학한, 1998, 262). 이러한 신자유주의 교육 목적의 제한성은 교육의 본질을 벗어나서 교육의 도구화 현상을 야기하고, 이 점에서 신자유주의 교육은 위기에 직면한다. 이건만(2012, 189-190)은 이러한 교육의 도구화 현상이 ‘경제지상주의’(econosuperism)로부터 강화되었고, 도덕적 해이를 일으킨다고 본다. 이는 곧 현대성의 위기를 가져오는바, 이 위기는 과학주의(scientism) 사고와 논리로부터 형성된 기술적 합리성과 도구적 이성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신자유주의 교육의 한계는 자본주의와 결탁한 신자유주의에서 두드러지는 경제우선주의에서 확인된다. 경제를 앞세우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일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아니라 전 사회의 보편적 현상으로 굳어질 수 있다. 일례로 2008년 미국의 리만브러더스 파산이 가져온 세계적 경제위기를 들 수 있다. 2008년과 2009년 미국의 거대 기업들과 대형 은행들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였다. 그 원인으로 주택가격의 급상승으로 인한 가격 거품현상이 지목되었다. 이것은 비정상적으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일대 금융위기를 초래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절약이 과소비와 허영으로 대체되었고, 그러면서 도덕적 해이가 보편화되었다는 것이다(이건만, 2021, 204-208).

다음으로 신자유주의의 도구적 이성에서 교육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도구적 이성은 전통적인 이성관을 이탈하는 것으로, 자본의 무한 축적이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생산성 증대와 자원과 자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힘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되면 도구적 이성과 합리적 기술은 시장만능주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질된 이성 이해는 인간의 자율성을 제거하고, 신자유주의 체제 존속과 확장을 위한 타율성 측면을 강조한다. 이는 과학주의와 도구적 이성으로 초래하는 인간 소외 문제를 비롯한 현대 위기 현상을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며, 그러한 것을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사고를 고착시킨다. 그래서 자율성을 상실하고 도구적 이성으로 존재하는 인간에게 질 높은 생활수준과 재생산 그리고 자본 확보가 현실적으로 보장되는 한 인간과 사회와 이 세상에 대한 심층적 비판과 개혁을 향한 노력은 부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이건만, 2012, 194-195).

신자유주의에서 보는 인간의 이성은 그 자체로 현명하거나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하이에크(2016, 49-53)는 이성을 사회관계 속에서 인간들 간 상호작용을 거쳐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 예측하고 판단하며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조건화된 상황 속에서 자신의 행동 유무를 판단할 따름이다. 여기서 조건화된 상황은 시장 질서를 의미한다. 시장은 오랜 역사 속에서 인간들이 상호작용하는 자리가 되었고, 그러므로 특정

한 인간 이성과는 별개의 독립된 질서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시장 질서 안에서 인간은 협동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발견하며 미지의 세계에 적응해 나간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 교육의 도구화 현상은 인간을 자본으로 판단하는 인간 자본론에 의해 심화되었다 할 수 있다. 이견만(2021, 243-244; Schults, 1981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인간자본론이란 자본으로서 인간의 지적 능력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자본을 지식으로 보게 되면, 지식 자본은 곧 사회발전과 경제성장의 핵심 요소로 간주된다. 그래서 소수의 엘리트인 인간 자본들이 자유경쟁을 통해 창의성을 발휘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게 되면 지식기반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 신자유주의에 맞는 유연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막대한 자본과 대량생산을 통해 경제적인 부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이다. 또한 유연한 노동력은 기초 지식과 새로운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여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학교는 그런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보편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신자유주의에서 교육의 도구화 현상은 가속화된다.

이와 같이 교육의 도구화 문제는 이성을 자율적 이성이 아니라, 도구적 이성으로, 그리고 신자유주의 체제에 의해 조건화 된 이성으로 보기 때문에 초래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이후 점증 된 교육의 위기는 신자유주의가 경제우선주의 체제를 가속화 시키면서 교육개혁을 내면적 본질적 차원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확장하기 위한 도구적 차원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심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도구화 현상은 인간을 자율적 존재가 아니라 타율적 존재로 만든다. 언급한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는 완전한 자유를 지닌 시장에서 자본축적을 위해 무한경쟁을 펼친다. 이곳에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되고, 다양한 문제들이 완전하고 자유로운 시장 질서에 맡겨진다. 그런 까닭에 공정한 분배는 거론될 수 없고, 전통적인 가치들도 배제된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자유는 보편적인 자유가 아니라, 자본축적을 확보하는 소수에게 보장되는 자유이다. 바로 이 점에서 신자유주의에서 자유는 평등과 불평

한 관계를 갖게 된다. 신자유주의에서 자유가 보편적으로 보장된 요소가 아니듯이 평등 역시 모두에게 주어지는 가치가 될 수 없다.

## 2. 신자유주의 교육의 비평적 평가

신자유주의 교육을 통해 나타나는 변화는 긍정적이지 않다. 신자유주의 교육이 양산하는 인간상은 유연한 노동력에서 확인되는데, 이것은 전통적인 가치를 이탈 혹은 변질시킨다. 신자유주의의 유연한 인간은 단기적 유연성과 끊임없는 변화에 직면하면서, 이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므로 불안함을 안게 된다(오성주, 2016). 또한 교육을 통해 기대하는 인간상은 신자유주의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지만, 교회와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이 점이 신자유주의 교육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오성주(2016)에 의하면, 현대사회는 위기사회로부터 부정적 결과가 누적되어 손상이나 상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사회에 들어와 있다. 누적된 위기는 적절한 해결책을 얻지 못하고 통제 불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신자유주의의 인간상에서 그러한 면을 짐작할 수 있다. 세넷(2002, 30-40)에 의하면, 유연한 인간상을 지닌 신자유주의의 인간은 '장기는 안돼'라는 사고방식을 갖는다. 이 말은 한 곳에 오랜 시간 근무하면서 소속 공동체에 의무감을 갖고 헌신하며 책임을 다하는 전통적인 가치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신인간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사회에서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영속적인 가치를 더 이상 추구하지 않으며, 고정불변의 규칙들을 보존하기를 포기한다. 이렇게 되면 공동체 내에서 상호작용하며 서로 신뢰하고, 지지하며,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던 전통적인 방식을 유지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신자유주의 신인간은 시류에 따라 빈번하게 이동하며 표류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

그런데 한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인간은 공동체성의 약화와 해체 속에 정체성 상실을 경험할 위험을 가진다. 그룸(Groome, 2001, 69-71)은 현대 포

스트모더니즘이나 해체주의 철학은 인간 본성이 없다고 주장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러나 인간은 가족의 에토스(ethos), 가치, 세계관, 재정 형편, 성(性)역할 등에 의한 가족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 안에 유전적 신체적 조건 등 모든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인간다운 기능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갈 때 정체성을 깨닫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유연한 조직과 유연한 인간성을 표방하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그런 점을 기대할 수 없다. 인간의 정체성 형성과 발달은 공동체 안에서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필수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롬(2001, 26)에 따르면, 관계는 대화를 가능케 만들고, 인간은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 사이 대화를 기초로 서로의 가치관을 주고 받으면서 공동체의 신앙을 전수해간다. 가족 공동체에서 고유한 태도, 시각, 가치, 신앙 등도 그러한 방식으로 전수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 내 관계를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 가치관이 전수될 수 있다. 장화선(2013, 99)에 의하면, 기독교교육은 생명을 전수하는 가치 있는 활동이며, 배움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생명을 갖게 하는 데 목적을 둔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에서는 이러한 가치가 전수되지 못하며, 오히려 공동체성 해체와 정체성 상실을 가져올 우려가 깊다.

한편 신자유주의의 유연한 힘은 논의한 바와 같이 관료주의와 중앙집중적 힘을 약화 내지 제거 시키고, 새로운 사회에 맞추어 기민하게 대응하며 움직이는 유연한 노동력을 만들어 준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시장에서는 필수적인 과제이긴 하지만, 이로 인하여 전통적인 가치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된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신자유주의의 신인간은 심화 된 도구화 현상으로 인하여 자율성이 아니라 타율성을 당연히 받아들인다는 데 있다. 그리고 신인간은 성과사회 안에 함몰되어 자기를 착취하면서 신자유주의 시장을 강화하는 하나의 도구로 자리하게 된다.

이상의 논의는 신자유주의에 대하여, 첫째로, 신자유주의가 가정하는 완

전한 시장 질서에 대하여, 둘째로, 신자유주의 시장의 무한경쟁을 통한 자본 확보에 대하여, 셋째로, 신자유주의가 교육을 도구화하고, 도구적 이성을 통해 양산하는 유연한 노동력 곧 신인간에 대해 재고할 것을 요청한다. 기독교교육은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 무엇보다 성경에 기초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 이해의 근간으로 하면서 온전한 교육 회복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기독교교육은 신자유주의가 강화하는 도구적 이성과 타율성에 대응하여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통한 진정한 자율성 함양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는 쪽으로 나아간다. 또한 기독교교육은 시장질서와 자본 중심 체제에서 유연한 신자유주의 인간이 아니라 성경에 순종하므로 기독교 본연의 가치들 곧 섬김과 희생과 헌신을 실천하는 참 자율성을 나타내는 인간으로 향하게 한다. 이제 이를 염두에 두면서 신자유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기독교교육의 역할을 제안하려고 한다.

첫째로, 신자유주의는 자체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 하이에크(2016, 137-142)는 전통적 도덕이 합리적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고, 오히려 확장된 질서를 창조하고 유지하며 진화하는 도덕을 따를 때 인류가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장(場)이 시장이다. 따라서 각 개인이 도덕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인류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자유시장이 자체적인 질서에 의해 최적의 방식으로 인류 역사를 보존한다고 보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시장을 유토피아로 보면서 피조세계의 중심이라고 판단하는 시장만능주의가 자리한다. 이러한 관점은 균형 있는 시각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경제로 환원하여 판단하는 환원주의 문제를 안게 된다.

둘째로, 신자유주의 시장은 무한경쟁을 통한 무한 자본 확보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렇게 할 때 알지 못하는 개인들의 소유가 교환될 수 있고, 활용될 수 있으며, 역시 서로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각각 소유한 자본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에서는 인간을 성경의 가치를 따라서 그리고 성경에 순종하는 가운데 타인을 이롭게 하는

존재로 보지 않는다. 그 대신에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내재 원리에 장착된 질서와 규칙에 순응하는 인간의 교환 행위가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타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여긴다. 바로 이 점에서 하이에크(2016, 159-172)는 자신의 수고가 익명으로 치부된다는 것에 혐오를 느끼는 특권층이나 지식층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중앙집권적 통제를 넘어서 자생적인 시장질서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시장 질서에 기초한 신자유주의 사상은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과 가치들을 배제한다. 사랑과 희생과 헌신 같은 중요한 덕목들은 신자유주의 시장질서가 표방하는 경쟁을 통해 쟁취하는 자유 개념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로, 신자유주의의 신인간은 기독교공동체가 이해하는 새로운 피조물, 새 인간이 아니다(고후 5:17). 또한 신자유주의가 가정하는 완전히 자유로운 시장에서 무한경쟁을 통해 무한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는 기독교공동체의 방향과는 궤를 달리한다. 유연한 노동력의 무한한 배출은 이 사회를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으로 이끌지 않는다. 오히려 신자유주의 시장을 더 공고히 하고,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소수 계층에게만 무한한 자유와 기회를 보장할 뿐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은 세넷(2002, 103-104)이 볼 때에는 신자유주의가 요구하는 유연성을 갖지 못한 채 심층으로 나아가지 못하여 표면에만 머물면서 표류하는 인생이 된다. 이런 까닭에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교육은 신자유주의 시장 질서를 무한정 유지하며 강화해 주는 도구적 위치를 벗어나지 못한다.

### 3. 회복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역할

신자유주의는 유연한 체제에 기민하게 적응하는 유연한 인간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장기적이고 친밀한 인간관계 속에서 신뢰와 충성과 헌신을 발전시키는 모습이 나타나지 못한다. 게다가 여기에

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연속선을 가정하고 그 가운데 자신을 성찰하고 공동체와 관계하며 정체성을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행위도 불가능하다. 이것은 살피본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 시장은 자본주의 종교성으로 나아가고, 그 결과 성과사회를 부추기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켜왔던 연유에 기인한다. 이렇게 신자유주의는 교육을 도구화하며, 신자유주의의 신 인간은 전통적인 가치를 약화 내지 변질시키며, 공공성을 희석 시키는 특성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신자유주의가 예상하는 것처럼 시장의 자생적 질서에 모든 것을 맡기면 과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하이에크가 주장하는 자생적 질서는 스미스의 '보이지는 않는 손'(an invisible hand)에 기초한다. 스미스(Smith, 2019, 552-553)는 완전한 경쟁이 실현되는 시장에서 개인은 오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그런 중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공공의 이익을 가장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하이에크(2016, 154)는 이런 스미스의 이해에 기초하여 완전한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은 개인의 의도와는 상관 없이 알지 못하는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시장의 질서에 따라 자생적으로 해결된다는 사회적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성을 중시했던 계몽주의와는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온다. 즉 계몽 정신으로 인간 사회의 위기를 풀어가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장 질서에 모든 것을 맡기게 되면 사회에 대한 인간의 책임 자체가 부정된다는 것이다(장윤재, 2008, 169-171).

이러한 신자유주의에 대응하여 기독교교육은 첫째로, 시장만능주의 시각에 대응하여 시장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역시 피조 세계의 한 부분으로 변혁의 대상이 됨을 일깨우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자본주의와 결탁할 때 종교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것이 가지는 경제중심의 환원주의 성향을 경계해야 한다. 스피어(Spier, 1979, 66-104)에 의하면, 도이베르트(H. Dooyeweerd, 1894-1977)는 피조세계를

열다섯 가지 국면들로 이루어진 총체적인 세계라고 인식하면서, 어느 한쪽이 다른 것을 종속시키는 문제에 대해 경계하였다. 그런 점에서 모든 것을 시장의 질서에 따라 작동될 것을 주장하면서 경제적 측면으로 풀어나가는 것은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루지 못할 우려를 낳는다. 또한 신자유주의 시장은 빚을 청산하기보다는 도리어 막대한 채무를 누적시킨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시장은 기독교가 지향하는 구원이 자리하지 않는 곳이다. 이곳에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기독교교육은 완전한 시장을 전제하는 관점이 지닌 문제를 직시하는 동시에 시장을 비롯한 제(諸)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인간의 자세를 일깨우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겠다.

둘째로, 기독교교육은 신자유주의에서 도구화된 교육의 문제를 살피고, 참 교육을 회복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 신자유주의는 교육을 시장의 원리에 따라 접근하면서 이를 경제적 행위로 이해한다. 따라서 교육시장은 절대시 되고,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 놓으면 소비자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상품들을 공급자들이 만들어낼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시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이견만(2009, 183-190)에 의하면, 시장원리에 입각한 신자유주의 교육은 공교육을 해체하고, 공공성에 기반을 둔 비판적 민주적 시민성을 가진 책임 있는 이들보다는 시시각각 변하는 유연한 시장에 대처하는 표류하는 인간을 양산하는 경향이 있다. 신자유주의는 소비자중심 교육이 학습자를 중시하여 교사와 학부모가 학생의 학습권을 실현하기 위해 상호협력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실상은 교육 행위가 시장에서 상품을 사고파는 행위로 축소되어 인격과 인격의 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전인 교육은 실종되고 만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시장에서는 경제력이 하나의 중요 표준이 되기 때문에, 불평등 문제가 심화된다. 이와 같은 문제는 신자유주의가 시장을 우선시하는 시장만능주의 이해에 기초할 때는 불가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교육의 공적인 성격을 부정하는 쪽으로 나아갈 때에는 공교육의 사회적 기능

과 현실 자체를 부정하는 문제를 일으킨다. 그런 까닭에 신자유주의 교육은 공정성을 상실하게 되고, 그래서 편파적이라 할 수 있다(김용일, 1998, 109-110). 기독교교육은 이런 점을 고려하면서 신자유주의 교육의 도구화 현상을 경계하고, 바른 교육의 방향을 고민하며 설계하고 실천해야 한다.

셋째로, 신자유주의의 신인간에 대응하는 성경적 인간상 형성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 신자유주의의 신인간은 유연성을 요구받으며 급변하는 체제를 받아들이고, 과거와 단절하며 정체성을 도외시키고, 표류하는 인간성을 야기한다(Sennett, 2002, 103-104). 이에 대응하여 기독교교육은 성경에 기초한 인간의 통전성을 중시한다. 성경은 인간학의 교과서는 아니지만, 과학적인 접근만으로는 밝힐 수 없는 인간의 중요한 본질을 교훈한다. 반더발(Van der Walt, 1997, 10)은 성경이 독자적인 인간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성을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런 맥락에서 성경은 언제나 인간을 전체적 관점(totality perspectives) 내지는 통전적 관점(holistic views)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인간은 공동체의 해체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 공동체성 상실은 개인을 고립시키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심화로 이어진다. 이는 공동체 안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 발전시키면서 행복을 추구하는 기독교교육과는 상치된다(이금만, 2008, 193). 기독교교육은 이 점을 고려하면서, 신자유주의 신인간이 마주하는 위기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 V. 나가는 말

신자유주의에서 시장은 모든 것의 근간이며, 중심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기대하는 것과 같이 완전한 경쟁을 통해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곳에서는 자본의 유무에 따라 자유가 결정되고, 평등보다는 자본에 기초한 불평등이 조장된다. 또한 이것은 자본주의를 강화하고

성과사회를 가져오므로 외부의 어떠한 억압도 없이 모두가 자기 스스로 착취를 반복하면서 탈출구가 없는 시장을 구축한다. 이는 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시장원리에 따라 모든 것을 재편하는 속성에 기인한다. 교육시장은 막대한 자원을 중단 없이 축적하기 위해 유연한 노동력을 양산하는 교육의 도구화 현상을 심화시킨다. 따라서 교육시장에서는 진정한 인격 관계가 상실되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비인격적 측면이 강화된다. 유연함의 원칙은 신자유주의 신인간에 적용되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연속선상에서 정체성을 파악하며 공동체에 헌신하는 모습은 사라지고, 파편화된 인간성을 보이면서 표류하는 신인간을 양산한다.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 시장이 강조하는 자유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외부의 개입을 불허하고 자체적인 수요와 공급의 과정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고 교환이 이루어지는 신자유주의 시장에서 자유는 중요한 가치이고 동력이다. 이런 맥락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적절히 작동되는 시장 원리는 인간들 사이 자유로운 교류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리고 그런 자유의 강조가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 있는 청지기적 자세를 근거할 때에는 지나친 국가와 여타 외부 제도의 억압을 벗어나서 세계화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서로 간 소통을 보장하고 인류의 하나됨과 보편적 가치를 고양하는 쪽으로 나아갈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가능성과 함께 앞서 논의한 부정적인 면들을 감안하면서 기독교교육은 경제를 최우선으로 놓고 접근하는 시장중심 사고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시장은 완전무결하지 않으며, 완전경쟁을 통해 모두가 완전한 자유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교육은 성경과 기독교학문철학의 바탕 위에 시장 역시 개혁의 대상임을 인식하고 경제우선주의가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균형 있는 접근을 해야 한다. 또한 기독교교육은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심화되는 교육의 도구화 현상에 대응하여 교육 본연의 목적을 점검하고, 시장만능주의를 벗어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교육의 도구화는 시장에 긴요한 유연한 노

동력 생산에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이는 교육을 시장의 원리로만 접근하므로 공교육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기독교교육은 그 점을 경계하면서 공정한 교육을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기독교교육은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인간학을 토대로 통전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인간상을 규명하고 발전시켜 파편화되고 표류하는 신자유주의 신인간상을 교정하고 회복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 참 고 문 헌

- 강응원 (2011). 세계화와 기독교교육의 과제. **기독교교육논총**, 26, 21-55.
- [Kang, Y. W. (2011). Globalization and the tasks of Christian Education. *A Journal of Chrstian Education in Korea*, 26, 21-55.]
- 김현미 외 5인(편) (2010). 친밀한 적: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일상이 되었나. 서울: 도서출판 이후.
- [Kim, H. M. et al. 5 (ed.) (2010). *The intimate enemy: how did neoliberalism become a routine*. Seoul: Ehoo publishing co.]
- 김진호 (2016). **근대유럽의 역사**.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 [Kim, J. H. (2016). *A history of modern europe*. Seoul: Hanynag University Publishing.]
- 김호균 (2010).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세 가지 관점: 진단과 대응전략. **질서경제저널**, 13(3), 1-21.
- [Kim, H. G. (2010). Three perspectives about global monetary crisis: a strategy of diagnosis and response. *Ordo Economics Journal*, 13(3), 1-21.]
- 박승인 (2019).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직면한 상황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조직신학논총**, 54, 53-96.
- [Park, S. I. (2019). A new paradigm of the contextual theology confronted with the neoliberalistic globalization. *Korean Journal of Systematic Theology*, 54, 53-96.]
- 배성인 (2005). 신자유주의 시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상관성에 대한 논의. **비교민주주의연구**, 1(1), 23-55.
- [Pai, S. I. (2005). A discuss about the relevance of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cy in neoliberalism era. *A Study of Comparative Democratic Studies*, 1(1), 23-55.]
- 오성주 (2016). 21세기 위기사회 속에서의 영성과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47, 13-49.

- [Oh, S. J. (2016). Spirituality and Christian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risk society. *A Journal of Chrstian Education in Korea*, 47, 13-49.]
- 오현선 (2013).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신학교육의 과제와 전망. **기독교교육논총**, 36, 65-91.
- [Oh, H. S. (2013). A task and vison of ecumenical theological education in Korea. *A Journal of Chrstian Education in Korea*, 36, 65-91.]
- 이건만 (2009). **교육과 사회사상의 변천**. 서울: 도서출판 원미사.
- [Lee, K. M. (2009). *The change of education and social ideas*. Seoul: Wonmisa.]
- 이건만 (2012). **교육과 지성: 시대정신과 사회변동**. 서울: 집문당.
- [Lee, K. M. (2012). *Education and intelligence: the spirit of the times and social change*. Seoul: Jipmoondang.]
- 이금만 (2008). 생명을 살리는 기독교교육의 성격. **기독교교육논총**, 18, 179-202.
- [Lee, G. M. (2008). The characteristics of Christian education for life, *A Journal of Chrstian Education in Korea*, 18, 179-202.]
- 임재홍 (2003). 신자유주의와 교육법의 변화-교육개방과 공교육의 위기. **민주법학**, 23, 203-238.
- [Lim, J. H. (2003). Neoliberalism and education law - liberalization of trade in education and crisis of the public education, *Democratic Legal Studies*, 23, 203-238.]
- 장윤재 (2008). 모든 세계화는 좋은 것인가? - 신자유주의 세계화 담론에 대한 신학적 성찰. **대학과선교**, 14, 160-179.
- [Chang, Y. J. (2008). Is all globalization a good thing? - a theological reflection about neoliberalism globalization discussion. *University and Christian Mission*, 14, 160-179.]
- 장화선 (2013). 생명 개념의 전수를 위한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36, 93-113.
- [Chang, H. S. (2013). Christian education for the transmission of life concept, *A Journal of Chrstian Education in Korea*, 36, 93-113.]
- 정훈 (2016). 광복70년, 한국교육의 성격: 발전주의와 신자유주의 교육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교육철학**, 58, 139-168.

[Jung, H. (2016). The 70 years after independenc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 education: focused on the correlation of developmental education with neoliberal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58, 139-168.]

지주형 (2018).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서울: 책세상.

[Ji, J. H. (2018). *The origin and formation of neoliberalism in Korea*. Seoul: Cheak Sesang.]

천보선·김학한 (1998). **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의 진로**. 서울: 도서출판 한울.

[Chun, B. S. & Kim, H. H. (1998). *A course of neoliberalism and Korean edcation*. Seoul: Hanul Publishing.]

한병철 (2012). **피로사회**. 김태환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원저 2010 출판)

[Han, B. C. (2012). *Weary society*. (T. H. Kim Trans.). Seoul: Moonhak & Jisungsa. (Original work published 2010).]

한병철 (2015). **심리정치: 신자유주의의 통치술**. 김태환 역. 서울: 문학과지성사. (원저 2014 출판)

[Han, B. C. (2015). *Psytocracy: Way of ruling of neoliberalism*. (T. H. Kim, Trans.). Seoul: Moonhak & Jisungsa. (Original work published 2014).]

Benjamin, W. (2008).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폭력비판을 위하여, 초현실주의 외**. 최성만 역. 서울: 도서출판 길. (원저 전집 1972-89 출판)

[Benjamin, W. (2008). *About concepts of history, for criticizing violence, surrealism et al.* (S. M. Choi, Trans.). Seoul: Gil Publishing. (Original work published 1972-78).]

Chomsky, N. (1999).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강주현 역. 서울: 도서출판 모색. (원저 1999 출판)

[Chomsky, N. (1999). *Profit over people*. (J. H. Kang, Trans.). Seoul: Mosek Publishing. (Original work published 1999).]

Giddens, A., & Sutton, P. W. (2014). **현대사회학(7판)**. 김미숙 외 6인 역. 서울: 을

유문화사. (원저 2013 출판).

[Giddens, A., & Sutton, P. W. (2014). *Sociology (7th Edition)*. (M. S. Kim, et al. 6 Trans.). Seoul: Elumunhwasa.(Original work published 2013)]

Groome, H. T. (2001). *Educating for life: A spiritual vision for every teacher and parent*. New York: The Crossroad Publishing Company.

Hayek, F. A. (2016). **치명적 자만**. 신중섭 역. 서울: 자유기업원. (원저 1988 출판).

[Hayek, F. A. (2016). *The fatal conceit* (J. S. Sin, Trans.). Station. Seoul: Center for Free Enterprise.(Original work published 1988).]

McChesney, R. W. (1999). 서문. Chomsky, Noam. 강주현 역.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서울: 도서출판 모색. (원저 1999 출판)

[McChesney, R. W. (1999). Introduction. Chomsky, Noam (1999). *Profit over people*. (J. H. Kang, Trans.). Seoul: Mosek Publishing.(Original work published 1999).]

Sennett, R. (2002).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 조용 역. 서울: 문예출판사. (원저 1998 출판).

[Sennett, R. (2002). *The corrosion of character*. Translator : Jo, Y. Station. Seoul: Moonye Publishing Co. (Original work published 1998).]

Smith, A. (2018). **국부론 하**. 김수행 역. 서울: 비봉출판사. (원저 1776 출판)

[Smith, A. (2018).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Vol. 2* (S. H. Kim, Trans.) Seoul: Beebong Publishing.(Original work published 1776).]

Smith, A. (2019). **국부론 상**. 김수행 역. 서울: 비봉출판사. (원저 1776 출판)

[Smith, A. (2019).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Vol. 1* (S. H. Kim, Trans.). Seoul: Beebong Publishing. (Original work published 1776).]

Spier, J. M. (1979).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philosophy (2nd ed.)* (D. H. Freeman Trans.). Nutley: The Craig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54).

Van der Walt, B. J. (1997), *Being human in a Christian perspective*.

Potchefstroom: PU for CHE(IRS F2-68).

Verhaeghe, P. (2015). **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어 가는가**. 장혜경 역. 서울: 반비.  
(원저 2012 출판)

[Verhaeghe, P. (2015). *How do we become monsters* (H. K. Jang, Trans.).  
Seoul: Banbee. (Original work published 2012).]

---

Abstract

---

## Roles of Christian Education for Restoring Life Crisis after Neo-Liberalism

Hong Sungsoo

Assistant Professor, Koshin University

This study is purposed to discuss attributes and limitations of neo-liberalism and to offer some roles of Christian education corresponding neoliberalism. Neo-liberalism is an econosuperism that entrusts all things to market order, and it regards this market as utopia. It does not remain as just an economical principle, but influences all aspects in human life. Then it shows its religiosity connecting to capitalism. Every human in it is thought of as flexible workforces appropriate to neo-liberalism market. Such being the case neo-liberalsim strenghtens instrumentation in education. Then it distorts freedom and equality, and it weakens traditional values. Because of this, modern people's identity is getting to be lost and their human characters to be floated. This study discusses these things critically, and offers roles of Christian education such as founding a well balanced understanding on the Scripture against this neo-liberalsim market, restoring the essential purpose of education from instrumentation in education, and investigating and applying a holistic human character on the basis of a Christian anthropology against this new human character of neo-liberalsim.

《 **Keywords** 》

Neo-liberalism, Capitalism, Instrumentation in education,

New human character, Christian education

- 투고접수일 : 2021년 8월 27일
- 심사완료일 : 2021년 9월 29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9월 29일